

# 여름철 뇌염



## 장 고 창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유행하는 뇌염은 「일본뇌염」 혹은 「일본 B형 뇌염」이라고 한다.

이 뇌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

본, 대만, 비올빈, 중국, 태국, 월남, 시베리아동부 등지에서도 발생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비교적 발생율이 높으며 특히 전라북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뇌염은 세균(박테리아) 보다 작아서 보통 현미경으로는 볼수 없는 「바이러스」(혹은 「비루스」)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병된다. 이 뇌염은 「큐렉스」라는 모기(작은집빨간모기)가 옮겨주는 병이기 때문에 모기가 번성하는 7월 중순부터 10월 초순에 걸쳐서 발생된다. 그러나 모기가 직접 뇌염을 앓은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동물을 통해서 전염된다. 그 동물은 돼지, 말, 소, 새 등인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이다. 실제 돼지는 병을 알지 않으면서도 균(뇌염 바이러스)을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은 균을 갖고 깊은 산에 있는 새나 계절 따라 다니는 새와 겨울 동안 땅속에서 균을 갖고 있다가 봄이 되어 땅밖으로 나온 개구리나 뱀을 물었던 모기가 돼지로 균을 옮기게 되어 돼지 몸안에서 균이 증식하게

## 특집 ● 여름철 전염병과 대책

된다. 이런 동물을 병독증폭숙주라고 한다.

따라서 뇌염의 예방을 생각하려면 균을 갖고 월동하는 냉혈동물이나 새를 어찌할 수 없다는 치더라도 병독증폭숙주인 돼지와 모기 그리고 사람에게 관해서 고려해야 된다.

다른 동물보다 돼지가 유달리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가 태어난지 1~2년, 혹은 2~3년내에 잡아먹게 되는 것과 증식율이 커서 새로 태어나는 새끼돼지가 많기 때문에 돼지가 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완전히 가질 수가 없다. 즉 개나 소처럼 한 10년씩 키우고 새끼 낳는 수도 적으면 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사람이 맞기에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뇌염 예방주사를 모든 돼지에게 놓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되어야 한다. 돼지는 실제 병을 앓지 않으나 뇌염예방주사를 놓게 되면 뇌염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돼지 몸 안에서 뇌염바이러스가 증식할 수가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게 된다.

모기에 관해서 고려해 보면 모기를 전멸시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어디에서던지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면 자라고 또 밤에만 활동하는 습성과 구충할 지역이 너무 넓어서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기장을 사용하거나 모기향을 피우건 간에 모기를 집안에서 없애거나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중요하다.

끝으로 사람에게 관하여 고려해 보자.

뇌염은 잔혹 어른에서도 발생하나 주로 어린이에서 발병되는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나 일본의 경우 전어린이의 일할(10%)이 매년 뇌염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만 다 몸살처럼 가볍게 앓고, 오백명가운데 한명 내지 천명 가운데 한명꼴로만이 정말로 뇌염을 앓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전강상태가 나쁘거나,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혹은 다른 병이 있을 때 불리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피로한 상태(과로)를 피하고

## 특집●여름철 전염병과 대책

영양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소극적이기는 하나 권장할만한 사항이다. 아직도 의학적으로 오백명 내지 천명당 한명이 생기는 그 환자를 미리 가려내는 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다.

다음이 예방주사접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부터 일본제 뇌염예방주사를 일부 지방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놓아 보니, 다소 검토할 문제가 있기는 해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뇌염예방주사가 권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뇌염예방주사를 만들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결론적으로 현단계에서 뇌염예방과 대책에 있어서의 최선은 개인적으로는 모기에 물리지 말고 더 나아가 집안에 모기가 없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육체적 과로를 피하고 영양상태를 좋게 유지하며 가능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전국화하고 또 실현성이 적으나 모기의 구충을 강화하며 양돈은 주민거주지역에서 가급적 멀리 하면서 위생적으로 사육하도

록 계몽하며, 돼지에서 항체를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 등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가능성이 크면서도 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한양의대 내과 부교수·의박)

### 우수계

#### 잘 크는 붕어

어느 국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다.

선생 : 세상에서 제일 잘크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학생 : 붕어요.

선생 : 아니 그렇게 붕어가 잘 자라요?

학생 : 아파가요. 전에 낚시 가서 잡아온 붕어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때 마다 10 썩 더 자라나던데요.

#### 새 사람

A : 요새 몇칠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소?

B : 글썬, 새 사람이 하나 생겨서 잠시 여행하고 돌아왔어.

A : 새 사람이라니? 그럼 낫잖아 않았겠니?

B : 이 사람, 이 세상에 새것이 어디에 있어. 처음 만났으니 새 사람이지.